

2002년 LNG 판매량 1670만톤 전망

가스공사, 발전용 604만7000톤으로 64만톤 증가 ... 도시가스용은 감소

2002년 상반기 LNG 판매량을 기준으로 할 때 2002년 LNG 판매는 당초 계획 1668만9000톤에 비해 0.1% 증가한 1670만4000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.

한국가스공사(대표 김명규)가 발표한 2002년 상반기 판매실적 및 하반기 전망 자료에 따르면, 2002년 한해 도시가스용이 당초계획 1127만6000톤보다 61만9000톤 감소한 1065만7000톤, 발전용은 당초계획 541만3000톤보다 63만4000톤 증가한 604만7000톤으로 전망되고 있다.

2002년 하반기 도시가스용 수요는 주택난방용 및 산업용이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경기상승에 영향을 받지 않은 채 값싼 다른 연료로의 전환 및 에너지 절감노력 지속 영향으로 당초 계획에 비해 17만톤, 약 3.5% 감소한 474만1000톤에 그칠 전망이다.

또 주택, 난방용은 지역난방의 확대보급, 옥매트 등 전열기구 보급, 정수기 보급, 전기압력밥솥 증가 등 생활 패턴의 변화로 당초 계획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.

반면, 산업용은 경쟁연료인 B-C유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취약함에 따라 산업체에서 B-C유 전환이 가속화되기는 하나 경기상승에 따라 설비가동률 및 설비투자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당초 계획수준은 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.

특히, 일반용은 영업용에 대한 각 도시가스기업들의 중점 수요개발 패턴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당초 계획수준을 약간 초과할 전망이다.

아울러 발전용 수요는 경기상승에 따른 전력 수요증가 및 LNG 발전단가 하락 지속 등의 영향으로 당초 계획에 비해 29만2000톤(10.3%) 증가한 312만3000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.

한전계통은 경기상승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국제유가 상승추세에 따라 중유 대비 LNG 발전단가 하락이 일정기간 동안 지속돼 하반기에도 증가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
< Chemical Daily News 2002/ 09/ 06 >